

##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의 이용자 실태 및 이용특성 분석\*

강혜승<sup>†</sup> · 홍민아<sup>1)</sup> · 양일선<sup>2)</sup> · 조미나<sup>2)</sup> · 김철재<sup>3)</sup>

연세대학교 식품영양과학연구소, 현대푸드시스템 메뉴지원파트,<sup>1)</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급식경영전공,<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전공<sup>3)</sup>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from the Users' Perspective

Hye-Seung Kang,<sup>†</sup> Min-Ah Hong,<sup>1)</sup> Il-Sun Yang,<sup>2)</sup> Mina Jo,<sup>2)</sup> Chul-Jae Kim<sup>3)</sup>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Hyundai Food System,<sup>1)</sup> Seoul, Ko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sup>2)</sup>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sup>3)</sup>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 examine the users' characteristics of both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b) understand the supporting quality of the food bank program, and (c)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rom the users' perspectives. The random samples of 120 food bank operators were selected by proportionat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nd from each food bank, 3 user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A total of 205 use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verage profile of food bank users were 58 year old, female, livelihood protectee (56.6%). Food assistance frequency were mostly once a week (34.1%), and everyday (22.4%). The survey also showed that non-governmental food banks delivered the food directly to the 42.7% of users, otherwise the users of government-dominant ones went to the food bank to receive the foods. Most of the donated foods were cooked food (50.0%), and the users also wanted to receive that kinds of food. Saving food expenses (55.6%) and overcoming hunger (16.6%) were found as the effectiveness to the us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0(2) : 224~233, 2005)

KEY WORDS : food bank · government-dominant · non-governmental · user

##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30년 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접수일 : 2004년 12월 28일

채택일 : 2005년 1월 12일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 2000-2-2200-006-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sup>†</sup>Corresponding author: Hye-Seung Kang,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PO Box 120-749, Korea

Tel: (02) 2123-4276, Fax: (02) 363-3430

E-mail: hskang@yonsei.ac.kr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층과 소득이 60%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등 2000) 특히,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산층 소멸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social polization)가 초래되어 대량 실직자, 노숙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빈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Kim 2002; 류진석 1998; Cheong 2000), 특히 결식 아동수는 1999년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8% 내외인

15만 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16만4천명으로 증가되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학령기 아동의 결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도가 2000년 기준 28.5%에 불과하여 연간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반면(Jeong 2001)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는 14조 7,476억원(Ministry of environment 2001)으로 식량자원과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푸드뱅크(Food Bank)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 식품을 수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도록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조정하는 창구로 복지적 가치뿐만 아니라 식품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가치를 지닌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1월 푸드뱅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a), 민간주도로 서울YWCA, 대한 YWCA연합회,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한국부스리기복지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본부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되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를 통한 잉여자원의 나눔은 기탁자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강화와 고객의 충성도 증대, 잉여음식물 처리 비용의 절감,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등의 다양한 편익을 주며(Teron & Tarasuk 1999), 이용자에게는 적절한 식품의 공급으로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과 함께 식비지출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 등의 편익을 준다(Kang 2001; Cheong 1999).

푸드뱅크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푸드뱅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푸드뱅크는 다양한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푸드뱅크에 대한 연구가 다수의 사례발표(Lee 2000; Hong 2000; Choi 2000) 수준을 넘어서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졌다(Ryu 1999). 주로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1998; Park 1998; Jeong 1999; Shin 2000; Kang 2000) 정보기술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푸드뱅크 정보화시스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등(Kim 1999)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푸드뱅크에 대한 기탁자의 인식분석(Yang et al. 2002)과 수혜자의 편익분석 등(Kang 등 2003)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Park (1998)의 연구를 제외

하고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중 한 부문이나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이용자에 대한 지원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첫째, 각 주체별 푸드뱅크 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각 주체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특성을 파악하고, 셋째, 이용자의 푸드뱅크 이용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 2. 용어의 정의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국푸드뱅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주도적 「푸드뱅크 1377」(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b)과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 산하 6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주도적인 푸드뱅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두 주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정의 및 역할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주로 정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푸드뱅크1377」을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를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로 정의하였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푸드뱅크로부터 식품을 수혜받는 대상자를 푸드뱅크 사업 이용자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 이용자의 특성과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인 “푸드뱅크 1377”과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인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 산하의 서울YMCA, 대한YWCA연합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부스리기사랑나눔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별 분포에 따라 비례층화추출법에 의해 푸드뱅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120곳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푸드뱅크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기간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산하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200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이용자 측

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운영자에게 각각 이용사용 설문지 3부씩 총 360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부·회수하도록 하였다. 수령확인 절차를 거쳐 미수령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재발송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123부(34.2%),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82부(22.8%)가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푸드뱅크를 직접 방문하여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들이 분배되는 과정과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배달되는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설문 내용의 구성

설문지는 민간단체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운영자, 기탁자, 이용자(수혜자) 측면에서 실시한 Kang (2001)의 연구와 보건소의 노인배달급식에 관한 연구인 Park 등(2000)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푸드뱅크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푸드뱅크 이용기간, 결식 이유, 이용 빈도, 기탁받는 식품 종류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통계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0)을 사용하였다. 조사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 연구결과 및 고찰

### 1. 일반사항

푸드뱅크 사업 이용자의 일반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205명 중 남성(35.1%)보다 여성(59.5%)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30세 이하는 7.3%, 31세 이상 60세 이하는 36.1%, 61세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46.8%를 차지하여 평균 연령 58.3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Hunger in America 2001" 보고서의 푸드뱅크 이용자 특성이 남성(35.4%)보다 여성(64.6%)의 이용율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America's Second Harvest 2001). 이 보고서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이 18~29세 16.0%, 30~49세 48.9%, 50~64세 21.6%, 65세 이상이 13.5%로 우리나라 이용연령보다 낮은 연령 대 즉, 30~40대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캐나다의 푸드뱅크 이용자의 평균연령도 41세로(Starkey 등 1999) 우리나라의

평균연령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다수의 결식아동이 있으므로 노인 층에 집중된 푸드뱅크의 이용자 개발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력은 무학(33.2%)과 초등졸(20.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달 생활비 수준은 '20만원 이상 39만원 이하'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5%로 나타났다. 생활비 형태는 '국민기초 수급관리자' 56.6%, '공공근로(재활근로)' 5.9%, '본인직업' 5.9%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 수급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Kang (2001)의 연구 결과인 민간단체 푸드뱅크의 개인수혜자의 생활비 형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보조' 29.3%, '취로사업' 12.0%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현장조사 결과 푸드뱅크 운영기관에서 푸드뱅크 수혜대상 선정시 정부에서 지정된 국민기초 수급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수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가족구성은 '혼자산다' (48.7%), '자녀(아들·딸)' (26.5%), '배우자'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보유 질병은 '관절염' (39.9%), '고혈압' (19.7%), '당뇨병' (14.6%), '소화기질환' (1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 두 집단간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는 선행연구 결과로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으로 관절염이 52.0% 고혈압 36.0%, 호흡기질환 25.3%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등 19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따라서 관절염이 주로 많은 노인들을 위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장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는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음' 46.3%, '외출은 가능하나 도움 필요' 24.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푸드뱅크 이용 현황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알게된 경우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공공기관의 홍보'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푸드뱅크의 홍보활동' (29.3%), '방송매체·인쇄물·인터넷' (18.2%), '복지관 등 수혜기관' (12.2%)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공공기관 홍보' (25.6%), '푸드뱅크의 홍보활동' (24.4%), '복지관 등 수혜기관' (22.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정부주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Characteristics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Sex	Female	71	57.7	51	62.2	122	59.5
	Male	45	36.6	27	32.9	72	35.1
	No answer	7	5.7	4	4.9	11	5.4
Age	1 – 20 years old	4	3.3	5	6.1	9	4.4
	21 – 30 years old	5	4.1	1	1.2	6	2.9
	31 – 40 years old	13	10.6	11	13.4	24	11.7
	41 – 50 years old	25	20.3	5	6.1	30	14.6
	51 – 60 years old	14	11.4	6	7.3	20	9.8
	61 – 70 years old	24	19.5	12	14.6	36	17.6
	71 – 80 years old	17	13.8	21	25.6	38	18.5
	Over 81 years old	10	8.1	12	14.6	22	10.7
	No answer	11	8.9	9	11.0	20	9.8
Mean ± sd		56.4 ± 17.69		61.08 ± 20.84		58.25 ± 19.08	
Education	None	35	28.5	33	40.2	68	33.2
	Elementary school	27	22.0	15	18.3	42	20.5
	Middle school	13	10.6	9	11.0	22	10.7
	High school	20	16.3	17	20.7	37	18.0
	College	9	7.3	1	1.2	10	4.9
	Etc.	2	1.6	2	2.4	4	2.0
	No answer	17	13.8	5	6.1	22	10.7
Living	None	5	4.1	8	9.8	13	6.3
	Under 200,000 won/mth	23	18.7	19	23.2	42	20.5
	200,000 – 390,000 won/mth	39	31.7	27	32.9	66	32.2
	400,000 – 590,000 won/mth	17	13.8	7	8.5	24	11.7
	600,000 – 790,000 won/mth	11	8.9	7	8.5	18	8.8
	800,000 – 990,000 won/mth	9	7.3	3	3.7	12	5.9
	Over 1,000,000 won/mth	3	2.4	3	3.7	6	2.9
	No answer	16	13.0	8	9.8	24	11.7
How to make money	Livelihood protectee	74	60.2	42	51.2	116	56.6
	To do public labor	9	7.3	3	3.7	12	5.9
	To set to work	6	4.9	6	7.3	12	5.9
	The support of children	3	2.4	6	7.3	9	4.4
	The support of the aid	3	2.4	2	2.4	5	2.4
	To receive a pension	0	0.0	0	0.0	0	0.0
	Etc.	3	2.4	6	7.3	9	4.4
	No answer	25	20.3	17	20.7	42	20.5
Type of family <sup>1)</sup>	Solitude	53	47.7	39	50.0	92	48.7
	Living with married children	31	27.9	19	24.4	50	26.5
	Married couple	16	14.4	14	17.9	30	15.9
	Living with grand children	10	9.0	6	7.7	16	8.5
	Living with mother	6	5.4	6	7.7	12	6.3
	Living with grandparents	3	2.7	7	9.0	10	5.3
	Living with father	2	1.8	3	3.8	5	2.6
	Living with brothers	3	2.7	2	2.6	5	2.6
	Living with relatives	1	0.9	0	0.0	1	0.5
	Living with friends	1	0.9	0	0.0	1	0.5
	Etc	11	9.9	5	6.4	16	8.5
Total		137	123.4	121	168.1	238	125.9

<sup>1)</sup> results of multiple reponses

**Table 2.** Health conditions of the users

Health conditions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Arthritis	43	40.6	28	38.9	71	39.9
None	23	21.7	14	19.4	37	20.8
Hypertension	23	21.7	12	16.7	35	19.7
DM	17	16.0	9	12.5	26	14.6
Digestive disorder	12	11.3	12	16.7	24	13.5
Anemia	4	3.8	12	16.7	16	9.0
Paralysis	9	8.5	6	8.3	15	8.4
Diseases <sup>1)</sup> Laboring breath	7	6.6	7	9.7	14	7.9
Heart disease	7	6.6	6	8.3	13	7.3
Renal disease	4	3.8	5	6.9	9	5.1
Atherosclerosis	3	2.8	0	0.0	3	1.7
Hyperlipidemia	0	0.0	0	0.0	0	0.0
Etc.	16	15.1	10	13.9	26	14.6
Total	168	158.5	121	168.1	289	162.4
$\chi^2$	3.785 <sup>NS</sup>					
No difficulty in daily life	53	43.1	42	51.2	95	46.3
Going out with aid	32	26.0	19	23.2	51	24.9
Health condition Difficulty in going out alone · no difficulty in daily life	13	10.6	6	7.3	19	9.3
Difficulty in going out alone and daily life	3	2.4	4	4.9	7	3.4
Etc.	5	4.1	1	1.2	6	2.9
No answer	17	13.8	10	12.2	27	13.2
$\chi^2$	6.496 <sup>NS</sup>					

<sup>1)</sup> results of multiple reponses

<sup>NS</sup> No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dominant food bank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Table 3.** How to obtain the first information of food bank program

Methods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PR of public institution <sup>1)</sup>	40	32.5	21	25.6	61	29.8
PR of food bank <sup>2)</sup>	36	29.3	20	24.4	56	27.3
Belonging welfare facility	15	12.2	18	22.0	33	16.1
Prints and internet <sup>3)</sup>	18	18.2	8	9.8	26	12.6
Etc.	11	8.9	9	11.0	20	9.8
No answer	3	2.4	6	7.3	9	4.4
$\chi^2$	5.192 <sup>NS</sup>					

<sup>1)</sup> village office

<sup>2)</sup> leaflet

<sup>3)</sup> newspaper, magazine

<sup>NS</sup> No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dominant food bank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비율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의 홍보활동과 방송매체·인쇄물·인터넷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 자체의 홍보활동으로 전단지, 팜플렛을 이용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복지관등 수혜기관에서의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푸드뱅크 이용 기간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1년 이상 2년 미만' (28.8%)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0%), '6개월 미만' (2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1년 이상 2년 미만' (36.6%)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28.0%), '6개월 미만' (12.2%), '2년 이상 3년 미만'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비해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이용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1998년 1월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http://www.foodbank1377.org>).

결식은 이용자 전체 중 '없다' 55.6%, '있다' 42.9%로 나타났다. 결식 이유는 이용자 전체 중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36.0%, '식욕이 없어서' 34.9%, '식사 준비하기 귀찮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준비가 어려워져서' 26.7%,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23.3%, '음식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23.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 3. 이용자에 대한 푸드뱅크의 지원 특성

현재 푸드뱅크에서 지원 받는 빈도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크 이용자의 경우 '1주일에 1회' (39.8%), '기관에서 지원시에만' (18.7%), '매일' (13.0%)의 순이었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는 '기관에서 지원시에만' (28.0%), '1주일에 1회' (25.6%), '매일' (4.6%)의 순으로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6).

향후 원하는 푸드뱅크 지원빈도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매일' (27.6%), '1주일에 1회' (27.6%)로 나타났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는 '1주일에 1회' (30.5%), '매일' (28.0%), '내가 필요시에만'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현재 푸드뱅크에서 지원 받는 빈도는 1주일에 1회(34.1%)가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빈도로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매일 지원 받고 있는 비율(13.7%)보다 향후 매일 지원 받기 희망하는 전체 응답자(27.8%)의 비율이 높아 앞으로 지원빈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Table 4.** Period of using food bank

Period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Under 6 mths	27	22.0	10	12.2	37	18.0
6 mths - 1 year	32	26.0	23	28.0	55	26.8
1 year - 2 years	35	28.8	30	36.6	65	31.7
2 years - 3 years	15	12.2	10	12.2	25	12.2
Over 3 years	14	11.4	5	6.1	19	9.3
Etc.	0	0.0	3	3.7	3	1.5
No answer	0	0.0	1	1.2	1	0.5
$\chi^2$	9.695 <sup>NS</sup>					

<sup>NS</sup>No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dominant food bank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Table 5.** Skipping meals and its reasons

Yes or no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Skipping meals	No	69	56.1	45	54.9	114	55.6
	Yes	52	56.1	36	43.9	88	42.9
	No answer	2	1.6	1	1.2	3	1.5
Reasons <sup>1)</sup>	No side dishes	17	32.7	14	41.2	31	36.0
	No appetite	14	26.9	16	47.1	30	34.9
	Tired of preparing meals	13	25.0	10	29.4	23	26.7
	Difficulty in preparing meals	16	30.8	7	20.6	23	26.7
	Eating alone	9	17.3	11	32.4	20	23.3
	No money	13	25.0	7	20.6	20	23.3
	A busy life	4	7.7	1	2.9	5	5.8
	Etc.	2	3.8	1	2.9	3	3.5
	Total	88	169.2	67	197.1	155	180.2

<sup>1)</sup> results of multiple reponses

료되었다.

현재 식품을 지원 받는 방식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1$ , Table 7). 현재 푸드뱅크 지원 형태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30.1%), '조리된 음식을 받아간다' (26.8%),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받아간다'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42.7%), '조리된 음식을 받아간다' (13.4%),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받아간다'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비해 '조리된 음식을 받아간다'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현장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운영방식이 식품을 기탁 받은 후 이용자들이 기관에 와서 받아 가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장애인에게는 직접 배달해주는 형태인 반면, 민간주도형 푸

**Table 6.** Food assistant frequency at present and in future

Frequency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N	%	N	%	N	%	N	%	N	%	N	%
Everyday	16	13.0	34	27.6	12	14.6	23	28.0	28	13.7	57	27.8
Once/week	49	39.8	38	27.6	21	25.6	25	30.5	70	34.1	63	30.7
Twice/mth	8	6.5	7	5.7	2	2.4	3	3.7	10	4.9	10	4.9
Once/mth	5	4.1	5	4.1	5	6.1	5	6.1	10	4.9	10	4.9
When food bank assists	23	18.7	3	2.4	23	28.0	2	2.4	46	22.4	5	2.4
When I need it	4	3.3	6	4.9	7	8.5	15	18.3	11	5.4	21	10.2
Etc.	4	3.3	3	2.4	3	3.7	0	0.0	7	3.4	3	1.5
No answer	14	11.4	27	22.0	9	11.0	9	11.0	23	11.2	36	17.6

**Table 7.** Food assistant type at present and in future

Assistant type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Delivery of cooked foods home directly	37 (30.1)	53 (43.1)	35 (42.7)	41 (50.0)	94 (45.9)	72 (35.1)
Taking cooked foods home	33 (26.8)	20 (16.3)	11 (13.4)	11 (13.4)	31 (15.1)	44 (21.5)
Taking foods home	24 (19.5)	13 (10.6)	8 ( 9.8)	9 (11.0)	22 (10.7)	32 (15.6)
Delivery of foods home directly	9 ( 7.3)	14 (11.4)	3 ( 3.7)	4 ( 4.9)	18 ( 8.8)	12 ( 5.9)
Dining service	2 ( 1.6)	4 ( 3.3)	7 ( 8.5)	6 ( 7.3)	10 ( 4.9)	9 ( 4.4)
no answer	18 (14.6)	19 (15.4)	18 (22.0)	11 (13.4)	30 (14.6)	36 (14.1)
At present $\chi^2$					15.818**	
In future $\chi^2$					4.775 <sup>NS</sup>	

\*\*  $p < 0.01$

<sup>NS</sup> No Significance

**Table 8.** Type of assisted food at present and in future<sup>1)</sup>

Food type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In future
Cooked food <sup>2)</sup>	56 ( 47.1)	49 ( 45.8)	43 ( 54.4)	41 (59.4)	99 ( 50.0)	90 ( 51.1)
Processed food <sup>3)</sup>	43 ( 36.1)	39 ( 36.4)	41 ( 51.9)	33 (47.8)	84 ( 42.4)	72 ( 40.9)
Instant food · fast food <sup>4)</sup>	53 ( 44.5)	33 ( 30.8)	29 ( 36.7)	20 (29.0)	82 ( 41.4)	73 ( 41.5)
Raw food <sup>5)</sup>	37 ( 31.1)	45 ( 42.1)	24 ( 30.4)	28 (40.6)	61 ( 30.8)	53 ( 30.1)
Etc.	1 ( 0.8)	1 ( 0.9)	2 ( 2.5)	4 ( 5.8)	3 ( 1.5)	5 ( 2.8)
Total	190 (159.7)	167 (156.1)	139 (175.9)	126 (82.6)	329 (166.2)	293 (166.5)

<sup>1)</sup> results of multiple responses

<sup>2)</sup> cooked rice, soup, side dish, noodle

<sup>3)</sup> ham, soy sauce, milk and dairy product, spice

<sup>4)</sup> bread, hamburger, lunchbox

<sup>5)</sup> grain, vegetable, fruit, meat, fish

드뱅크는 직접 배달해주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향후 푸드뱅크 희망 지원형태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43.1%), '조리된 음식을 받아간다' (16.3%),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집으로 배달된다' (1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50.0%), '조리된 음식을 받아간다' (13.4%),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받아간다'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즉 이용자들은 주로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이용자들의 연령이 높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이 직접 배달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푸드뱅크에서 현재 주로 지원 받는 식품(음식)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 (47.1%), '즉석식품·패스트푸드' (44.5%), '가공식품' (36.1%)의 순이었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 (54.4%), '가공식품' (51.9%), '즉석식품·패스트푸드' (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향후 푸드뱅크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식품(음식)의 형태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조리된 음식' (45.8%), '식재료' (42.1%), '가공식품' (3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는 '조리된 음식' (59.4%), '가공식품' (47.8%), '식재료'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이는 Chung 등(2000)의 연구 결과 노인들이 원하는 최우선 필요순위는 밥(48.6%), 국

수·라면(19.6%), 빵과 우유(12.1%)였으며, YWCA자료집(1998)에서도 희망 음식이 1순위가 쌀(76.3%), 2순위는 반찬류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푸드뱅크의 지원을 계속 받을 의향에 대해 '있다'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2.0%는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속한 이용자 4.9%의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9).

푸드뱅크 지원 식품으로 인한 사고 경험에 대해 배탈난 경험이 '없다'가 90.7%, '있다'가 5.4%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는 '알리지 않았다'가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푸드뱅크에 알렸다'가 9.1%로 나타났다 (Table 10). 현재까지 푸드뱅크 지원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된 대규모 식중독 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나 실제적으로 배탈이 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4%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발생 후 해당 푸드뱅크에 반드시 알리도록 함과 동시에 식품사고시 법적 보호를 기탁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또한 기탁자들을 대상으로 기탁 식품이 '판매할 수 없어서 주는 음식'이 아닌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기탁하기 위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라 사료되었다.

#### 4. 푸드뱅크 이용 혜택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난 후 달라진 점으로 '식비지출 감소'가 전체의 55.6%로 가장 많았으며, '배고픔 감소' 16.6%, '친구 및 동료 생김' 4.4%, '병원 가는 횟수감소'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이는 Kang (2003)의 연구결과인 푸드뱅크 이용으로 인한 소득효과, 영양 및

Table 9. Intention of going on using food bank program

Intention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Yes	120	97.6	74	90.2	194	94.6
No	0	0.0	4	4.9	4	2.0
No answer	3	2.4	4	4.9	7	3.4

Table 10. Experience and management of assisted food related accident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Experience	Yes	5	4.1	6	7.3	11	5.4
	No	115	93.5	71	86.6	186	90.7
	No answer	3	2.4	5	6.1	8	3.9
Management	Taking no action	4	80.0	4	66.7	8	72.7
	Informing to food bank	1	20.0	0	0.0	1	9.1
	Informing to institute	0	0.0	0	0.0	0	0.0
	No answer	0	0.0	2	33.3	2	18.2



**Table 11.** Effectiveness of using food bank

Effectiveness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N	%	N	%	N	%
Saving food expenses	80	65.0	34	41.5	114	55.6
Reduction of hunger	19	15.4	15	18.3	34	16.6
Keeping company with colleagues	5	4.1	4	4.9	9	4.4
Reduced no. of treatment at hospital	3	2.4	2	2.4	5	2.4
Etc.	6	4.9	11	13.4	17	8.3
No answer	10	8.1	16	19.5	26	12.7

**Table 12.** Food expenses of the users' home before and after using food bank program

Food expenses <sup>1)</sup>	Government-dominant (n = 123)				Non-governmental (n = 82)				Whole (n = 205)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N	%	N	%	N	%	N	%	N	%	N	%
Under 5	28	22.8	66	53.7	21	25.6	37	45.1	49	23.9	103	50.2
5 - 9	40	32.5	33	26.8	15	18.3	11	13.4	55	26.8	44	21.5
10 - 14	28	22.8	7	5.7	16	19.5	12	14.6	44	21.5	19	9.3
15 - 19	8	6.5	5	4.1	5	6.1	5	6.1	13	6.3	10	4.9
Over 20	8	6.5	3	2.4	12	14.6	3	3.7	20	9.8	6	2.9
No answer	11	8.9	9	7.3	13	15.9	14	17.1	24	11.7	23	11.2

<sup>1)</sup> (10,000 won/mth)

건강상태 개선효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푸드뱅크 이용 전 식비지출이 '5~9만원' (32.5%)이 가장 많았으며, '5만원 미만' (22.8%), '10~14만원' (22.8%)의 순이었으며, 이용 후 식비지출은 '5만원 미만' (53.7%), '5~9만원' (26.8%)의 순으로 식비지출이 감소되었다.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이용자 역시 푸드뱅크 이용 전 식비지출은 '5만원 미만' (25.6%), '10~14만원' (19.5%), '5~9만원' (18.3%), 이용 후 식비지출은 '5만원 미만' (45.1%), '10~14만원' (14.6%), '5~9만원' (13.4%)으로 식비지출이 감소되어(Table 12), 푸드뱅크 이용 후 월 5만원 미만으로 식비지출을 하게 된 가정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식비지출의 감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이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에 따른 푸드뱅크 이용자의 실태 및 이용특성을 분석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뱅크 이용자는 여성(59.5%)이 남성(35.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58.3세로 60세 이

상이 전체 이용자의 46.8%를 차지하였으며, 생활비 형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6.6%로 저소득 노인의 이용율이 높았다.

둘째, 푸드뱅크에서 현재 지원 받는 빈도는 '1주일에 1회' (34.1%), '기관에서 지원시' (22.4%)의 순이었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빈도는 '1주일에 1회' (30.7%), '매일' (27.8%)로 나타나 지원빈도를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재 푸드뱅크의 지원 형태는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 되는 형태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42.7%로 높은 반면,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30.1%로 조사되어 두 주체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p < .01$ ), 향후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지원형태가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 되는 형태임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현재 푸드뱅크에서 지원 받는 식품은 조리된 음식이 50.0%이며, 향후 바라는 식품도 조리된 음식이 51.1%로 높아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밥, 반찬과 같은 조리된 음식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푸드뱅크 이용 혜택으로는 '식비지출 감소' (55.6%), '배고픔 감소' (16.6%)로 조사되어 저소득 계층에게 푸드뱅크가 생계 수단으로의 방편임을 시사하였으며, 푸드뱅크 이용 전 식비지출은 '5~9만원'이 26.8%로 가장 높았으나 이용 후 식비지출이 '5만원 미만'이 50.2%

로 조사되어 식비지출의 감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더 높은 지원빈도를 희망하고 있으며 원하는 지원형태도 조리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사업은 조리된 음식을 기탁할 수 있는 기탁자의 발굴과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탁식품의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실태 및 각 주체별 지원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례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한 표본의 설정으로 이루어져 공정성은 확보하였으나 완전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므로, 푸드뱅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되면 전수조사를 통한 푸드뱅크 사업의 이용자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김동춘 등(2000): IMF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출판사, 서울  
 류진석(1998): IMF체제하의 공공부조정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IMF지원체제하의 국가정책관리  
 류홍범(1999): 안산지역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활동. 제1회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운동워크숍.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부스르기사랑나눔회(1998): 사랑의 음식나눔은행 기탁자·수혜자·운영자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이용우(2000): 사례발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정책세미나: 푸드뱅크의 시대적 역할  
 정은옥(2001): 외식·급식업체의 푸드뱅크 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1회 졸업 과제전. 배제대학교 관광경영학부 외식·급식경영학 전공  
 최윤선(2000):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정책세미나: 푸드뱅크의 시대적 역할  
 홍석관(2000): 청주사회복지관. 정책세미나: 푸드뱅크의 시대적 역할  
 환경부(200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연찬회  
 America's Second Harvest. Hunger in America (2001): Local Report prepared for Worcester Country Food Bank, Inc.  
 Cheong JS (1999): Community organization for establishing a church sponsored foodbank.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Chung, KH (2000): The role of foodbank as a system: The role of foodbank as a welfare progra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odbank1377 (2002): <http://www.foodbank1377.org>  
 Kang C (2000): Case study on implementing welfare policy for the paupers - Focus on implementation factors for the success of foodbank progra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HS (2001): Economic validity evaluation using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on-government foodbank program.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Kang HS, Yang IS, Lee YS (2003): Investigation of the conditions and evaluation of the benefits of the foodbank program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8(2): 231-239  
 Kim J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 model for the activation of foodbank.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Kim YS (2002): Economic Status of the Poor Elderly Households in Urban - Comparisons of Poor with Nonpoor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95-119  
 Ministry of environment (2001): <http://www.me.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Enforcement ordinance of an emergency counterplan for poorly-fed childre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a): Instruction for food bank progra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b): Seoul head food bank - For the Organizers  
 Park KW, Yang IS, Chae IS, Lee HY, Jung HY (2001): Development of home-delivered meals service program system for home-bound elderly with low income class in the community, Eunpyeong Health Cen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k YS (1998):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operating the food bank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s of food bank in Seou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University of Seoul  
 Shin IS (2000): A study on the measures to activate food bank in Korea by analysis of its realities - with focus on basic food bank.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Starkey JL, Katherine GD, Kuhnlein HV (1999): Nutrient intake of food bank users is related to frequency of food bank use, household size, smoking, education and country of birth. *Journal of Nutrition* 129(4): 883-889  
 Teron AC, Tarasuk VS (1999): Charitable Food Assistance: What are Food Bank Users Receiv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6): 382-384  
 The Second Harvest Research Study. Hunger (1997): The Faces & Facts  
 Yang IS, Chae IS, Lee JM (1998): Foodservice management systems of Home-delivered meal service program for home-bound elderly.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1(9): 1498-1507  
 Yang IS, Kang HS, Kye SH (2002): Analysis of food donors' attitude on the foodbank progra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6(5): 1-7  
 YWCA (1998): <http://www.ywca.or.kr>